

“당원주권 · 유능한 전북도당 만들 것”

민주 윤준병 의원, 도당위원장 연임 도전 공식화
당원주권 도당 구현 등 연임시 추진 과제 제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정읍·고창 국회의원)이 다음달 15일 치러지는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거에 연임 의사를 밝혔다. 윤 위원장은 23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지금是大韓民國과 전북에 모처럼 찾아온 호기를 잘 살려내야 할 시기”라며 “전북도와 정치권이 협업해 전북의 기회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출마 배경에 대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가치와 철학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 차이가 있지만 이를 조율하고 수습하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지사 14개 시군 정치권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이 행정 경험을 갖춘 점을 언급하며 “시대 변화와 국가적 사명, 전북의 기회를 정책적으로 조율해 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연임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연임 시 추진 과제로 △당원 주권 전북도당 구현 △유능한 정책 정당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도당은 당원들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당원들이 주인이 되고 선출직 공직자를 키워내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전북도당의 문턱이 높다는 오해가 있는 만큼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과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역량 강화 의지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전북이 과거 60년간 겪어온 삼중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며 “도와 긴밀히 협업하고 정책적으로는 게이트키퍼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유능한 전북도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 카지노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원택 도지사가 도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할 사안”이라며 “사립이 찾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부정적 의견도 있는 만큼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적에만 머물 수는 없다”며 “정부 정책을 잘 활용해 전북 발전의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가 오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반도체 협력 생태계를 전북으로 유치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연임에 도전하는 윤준병 국회의원이 23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있다.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용지·용수·전력 등 준비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서는 “단계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하고, 2단계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공간과 법안의 제 개정 등을 통해 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전날 도당위원장 직에서 사퇴했다고 밝혔으며, 후보 등록 마감 결과에 따라 단독 후보 여부가 결정된다. 단독 후보가 될 경우 온라인 찬반투표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가 대전환 과정에서 전북의 몫이 제대로 쟁취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시장·군수·당원, 10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의 기대를 실현하는 전북도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 이원택 현 전북도지사가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도당위원장을 사퇴하자 위원장 경선에서 신영대 후보를 이겨 전북도당위원장에 당선되었다.

이후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단체장을 씩씩이해서 당선되도록 한 바 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부지 남원 중심 공공의료 거점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옆에 부지 확보 희망” 복지부 의견에
민주 도당 “공공의료 취지와 배치... 수도권 집중 우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단순한 의사 양성이 아니라 지방의료를 살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옆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부지 확보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공공의료의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에 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더라도 주 수련병원을 수도권에 둘 경우 의료 인력이 다시 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도당은 의사들이 수련받은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교육과 수련, 연구와 진료가 하나의 지역에서 연계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과 공공병원, 연구기관이

함께 들어서는 공공의료클러스터는 의료비이오 산업 육성과 지역 인제 양성, 일자리 창출 효과를 통해 지방소멸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원은 2018년부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지리산권과 전북 동부권을 아우르는 의료거점이라는 점에서 공공의료클러스터 구축에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남원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공공의료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전북은 물론 호남과 영남, 중부 내륙권까지 포괄하는 국가 공공의료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원칙과 공공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남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남원 이전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도 차원 국립의전원 유치 대응 TF 마련해야”

권요안 도의원, 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추경 심사과정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위원장(완주2)은 23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문제가 된 보건복지부장관의 국립의전원 서울집적화 발언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국립의전원 남원 유치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전담 대응체계 설립을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국립의전원은 남원 서남대 폐교의 이름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된 우리 전북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당시 복지부 장관

의 발언은 도민들에게 큰 우려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보고 당시 “국립중앙의료원 옆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희망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 근처에 국립의전원이 들어서야 효율적이라는 발언을 이어갔다.

권 위원장은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공식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단순히 우려로만 넘길 일이 아니라”며,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한 선정이 올해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북도 차원의 TF팀을 꾸려 국립의전원과 수련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을 남원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 국제대회 지원 예산 대폭 늘려야”

김성수 도의원, 전북 체육 진흥 등 위해 지원체계 강화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고창1)이 국제대회에 참가해 국위와 도의 위상을 높이는 관련 종목 국가대표 및 도 대표선수단에 대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국제무대에서 땀 흘리는 선수들은 전북 체육의 소중한 자산이자 도민의 자부심”이라며, “전북 체육의 도약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체육 진흥 정책과 실질적인 지원의지가 확실히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현장에서는 선수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도 차원의 관심과 예산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제대회 참가 선수들에 대한 도 차원의 사기 진작과 지원 확대는 단순한 일회성 격려를 넘어 선수들의 사기를 크게 높이고 전북 스포츠가 한 단계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선수단의 실질적인 교류와 경기력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국제대회 참가선수 격려 및 방문·지원 예산을 전향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울리 김 위원장은 “향후 지속적인 체육 발전과 국제 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국제대회 참가선수 격려, 현장 방문 체육 외교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 수립 시에도 도 집행부가 더 적극적이고 충분한 예산 편성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군산시의회(의장 서동수)가 23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시작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와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부의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윤신애·임동준·강수정·윤요섭·김효주·최경애 의원의 5분 자유발언 6건과 김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명서 1건이 채택되었다.

이어 설경민·서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 2건이 가결됐으며 서동원 의원이 시정질문이 진행되었다.

또한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검찰개혁 완수·민생정치 강화” | ‘익산 출신’ 민주 한민수 의원, 최고위원 도전

풍부한 언론 경험 · 당 지도부와 소통 능력이 강점

전북 익산 출신의 정치인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구 을)이 오는 8월 1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며 당내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한 의원은 대학 졸업 후 언론계에 투신하여 국민일보 정치부장·산업부장·외교안보국제부장·논설위원 등을 지낸 정통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이다.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57세인 한 의원은 익산 남성고를 졸업한 후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하여 졸업한 뒤 30여 년 가까이 언론 현장에서 정치·경제·외교 안보 분야를 두루 취재하며 정책과 권력 감시의 경험을 쌓았다.

이후 국회로 자리를 옮겨 국회 대변인,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입법부의 핵심 공보·정무리안을 두루 경험했다.

2022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강북구을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해 국회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한 의원은 정경대 당 대표 체제에서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아 당무 전반을 조율하며 탁월한 정무 감각을 발휘한 바 있다.

당 안팎에서는 “언론 감각과 정무 감각을 동시에 갖춘 근래에 보기 드문 탁월한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개혁 논의의 전면에 서 있다.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의 보완 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로 해놓고 검찰에 보완 수사라는 이름으로 수사권을 남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대한민국 검찰의 무소불위 폐해와 80년 적폐를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면 되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를 고쳐나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외에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 편만 들 것이 아니라 국회에 들어와 함께 논의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과 2028년 총선승리, 2030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단결하고 또 단결해야 한다”며, 자신이 “통합의 리더십으로 민주 개혁 진영의 대동단결을 이끌 수 있도록 최고위원이 되고자 한다”며 민주당원들의 강한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사진=한민수 의원실 제공)

한 의원의 전북 익산 출신이라는 점도 이번 최고위원 도전의 중요한 배경으로 꼽힌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 특히 전북 익산 출신 정치인으로서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치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관에서는 한 의원의 강점으로 △풍부한 언론 경험 △국회 공보·정무 실무 능력 △당 지도부와의 긴밀한 소통 능력을 꼽는다. 반면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100만이 넘는 민주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전국적 조직력과 대중적 인지도를 얼마나 확장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민수 의원은 “검찰개혁 완수와 민생정치 강화, 그리고 호남의 자존심을 지키는 정치에 앞장서겠다”며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한 평생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탁월한 정무 감각을 체득한 한민수 국회의원이 이번 8·17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어 당 지도부 입성에 성공할지 전북도민들의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기아동 보호 · 경계선 지능 한부모 지원 강화 | 이춘석 의원, 관련 2법 대표발의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위기아동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계선 지능 한부모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보호자가 공무원의 방문 조사 과정에서 다른 아동을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속여 조사를 피한 사례가 발생한 점을 반영해 마련됐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지자체 공무원이 위기 아동 양육 환경을 조사할 때 아동을 직접 대면해 신원을 확인하도록



인할 수 있는 제도를 장치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한편 발의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10~70~85 수준의 경계선 지능 한부모 가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양육 지원 제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장이 경계선 지능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가정방문을 실시해 생활지도와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이 있을 경우 가족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춘석 의원은 “방문 조사의 허점을 이용해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는 비극이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경계선 지능 한부모 가정의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실질적인 울타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